

돌산대교 풍경 품고 빈티지 매력 속으로

‘배’ 모티브 인테리어 인상적
모카포트 전문점 매력 가득
만선커피·크로플 조합 압도

왼쪽부터 카페라테, 만선커피, 브라운치즈크로플.

여수 ‘항해’

캠핑족들과 낚시꾼들 사이에서 성지인 국동항. 도심의 아파트가 병풍처럼 서 있고, 뽀뽀이 들어선 배들은 색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바다내음 물씬 나는 여수에 왔음을 몸소 느낀다. 눈앞에 보이는 드넓은 바다와 그 위에 세워진 돌산대교의 풍경으로 탄성은 절로 나온다. 국동항 구석진 공간, 폐허인 건물에 만들어진 카페가 커피 마니아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던 공간을 하나하나 손수 채워가며 완성한 카페. 그 빈티지한 매력속으로 들어갔다.

◇업사이클링에 빈티지 가득

국동항 한 편에는 옛 기계협동조합 건물 이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엔 외국인노동자 쉼터, 식당 등이 자리를 잡았었지만, 현재는 다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행하빈 곳만 남겨놓았다.

이러한 공간에 2년여 전 조용한 카페가 들어섰다. 배를 모티브로 만든 카페 ‘항해’. 카페 향하는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까지 이엄지 사장의 취향이 가득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빈티지 마니아인 이 사장. 카페 입구부



빈티지숍.

터빈티지스러움이 물씬 풍긴다. 멋스럽게 녹슨 닳, 간판 대신 달린 배 손잡이는 콘셉트 확실하게 느껴졌다.

내부 인테리어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완벽한 구성이다. 우드톤에 초록 식물 조합의 안정감. 특히 벽이 참 매력적이다. 또 곳곳에 배치된 식물들이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고 빈티지한 소품들로 꾸며 곳곳은 포토존으로 가득하다.

특히 텐테이블과 옐로우들이 한켠에 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은 차분

한 분위기와 함께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석’이 나왔다는 말이 이런 걸까. 이 사장은 “카페를 찾다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진공간에 만들어보자는 시도가 딱 들어맞았던 것 같다”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아놓은 공간을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카페 향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느림의 미학 만선커피

카페 향하는 커피머신이 없다. 모카포트

로만 커피를 내리는 모카포트 전문점이다.

모카포트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한다. 커피머신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홈카페가 유행하면서 모카포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물도 따로 넣어야 하고, 가스 불도 직접 조절하면서 시간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모카포트로 내려주는 커피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만큼 매력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향, 오일 등이 포트안에 담겨서 커피가 더욱 맛있어진다. 모카포트를 선택한 항해는 느림의 미학, 여행자들의 쉼터라고 표현한다.

항해에선 아메리카노가 아닌 만선커피라고 이름 지었다. 이 사장은 “커피를 마셨을 때 입에 가득 차는 맛이 난다는 의미로 만선커피라고 이름 지었다”며 “아메리카노가 아닌 ‘모카포트로 내리는 만선 커피입니다’를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딩해 사용하기 때문에 산미가 없고 다크한 맛이 인상적이다. 카페라테에 들어가면 더욱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요즘 카페에서 많이 보이는 디저트 크로플. 항해에선 시판 제품이 아닌 직접 생지를 만들어 내놓는다. 흔히 있는 크로플이

지만, 손수 만든 빵은 쫄쫄함고 고소한 향이 살아있다. 크로플 위에 올라간 아이스크림과 브라운 치즈, 시나몬 가루가 완벽한 팀플레이를 자랑한다. 단짠단짠의 매력은 커피와 조합이 압도적이다.

커피를 내릴 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내린 것을 보고 있자니 따분할 땐 함께 운영하는 2층 빈티지숍을 둘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잡지와 사진으로 벽면을 가득 채웠으며 모든 공간 하나하나에 이 사장의 애정이 듬뿍 묻어났다. 이 사장은 “빈티지는 하나하나 역사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멋이 바뀌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항해라는 공간은 오토이 나의 취향으로 꾸며놓은 공간인데 빈티지한 매력을 널리 홍보하고 싶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고 편견 없이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빈티지한 공간에 커피. 고전적인 감성. 당신의 항해에 쉼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주연 기자



모카포트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